

사이버시, 정치개입 확인... 김관진은 또 몰랐다?

국방부, 댓글의혹 수사... 연제욱·옥도경 등 21명 입건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주기...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된 최종 수사결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 또는 옹호하는 7100여건의 글을 심리전문 요원들이 작성해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대선 등을 전후해 이들 글 작성을 지시 또는 주도한 사이버사 요원들과 이를 방조한 혐의로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등 총 21명이 형사입건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발표 때보다 10명이 증가한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사 심리전문

단 작전요원들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했고 전직 사령관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일부에서 제기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지휘계선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 이메일, 관련문서, 출입현황, 사회관계망(SNS)을 분석하고 소환조사하는 등 입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군 내외의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타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은 부인

했다. 또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이버사의 정치관련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연제욱·옥도경 등 2명의 전직 사령관은 일부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된 작전 결과를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정치관련 특수방조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발표된 수사결과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군 당국의 정치관련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논평을 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뒷심’에 면죄부를 준 바주기 수사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정치적인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군이 정

도의 차이를 떠나서 규정을 어긴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응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련 행위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수사결과와 관련, “한마디로 꼬리자르기식 수사이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결과 발표”라면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박근혜 정권 바꾸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또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가 정치에 개입했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영산강 자전거길 93곳 ‘안전 이상’

2500억 들인 4대강 자전거길 부실

영산강 중주자전거길에서 93건의 안전문제가 발견되는 등 이명박정부에서 25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4대강 자전거길에서 수백 건의 안전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배포한 ‘4대강 자전거길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자전거길에서 모두 465건의 안전문제 및 개선사항이 지적됐다.

도로별로는 영산강 길 외에 한강 자전거도로 253건, 낙동강 중주자전거길 193건, 금강 중주자전거길 79건 등이다.

영산강 중주자전거길의 경우 영산강하구둑~담양댐 구간(133km)의 67개 지점 및 구간에서 ▲자동차와 자전거도로가 교차하는 구간에 관련 시설이나 정보가 부족해 사고 우려 ▲자동차 진입 금지를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낮고 자전거도로 중간에 설치돼 충돌 위험성 높음 ▲자전거길 노측 위험구간에 방호울타리 미설치나 설치 길이가 짧아 안전사고 우려 등이 지적됐다.

한강 자전거도로의 경우 팽당대교~충주댐 구간(135.7km)에서 ▲자전거 도로폭이 1m도 되지 않아 설계기준에 미흡함 ▲위험구간에 방호울타리 미설치 ▲급한 내리막길 안내 및 안전시설 미설치 등의 개선사항이 드러났다.

이런 문제 등으로 4대강 자전거길에서 구조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급커브구간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로 이용자들이 골절상, 손가락 절단, 의식불명 등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4대강 자전거길은 위험천만한 부실투성으로 드러났다”면서 “여름 휴가철과 장마철을 맞아 자전거길 이용자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즉각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는 등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월호법 발표에 쏠린 눈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비엔날레 논란 작품 전시해도 예산 불이익 없다”

김종덕 문화부장관 후보 청문회

“특별전 파행도 불개입 원칙”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파행에 대해 “문체부는 지원은 하되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의 소관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파행이 원인이 된 홍성담 화백의 ‘세월호일’ 작품 게시여부와 상관없이 문화부 예산과 관련한 광주시에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요구에 “(작품 게시여부에 따라) 광주시에서 지원을 줄이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전시 여부와는 별개로 “창작물이 어느 개인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광장히 무책임하다.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다”며 “정치적 이유에 의해 예술인들의 창작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미친가지”라고

비난했다.

김 후보자는 또 아시아문화전당의 차질없는 추진과 1년3개월째 공석인 아시아문화개발위원장의 조속한 선임을 약속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본인도 참여한 적이 있다”면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함께 김 후보자의 종합소득세 미납과 채납, 장남의 대학 부정입학 의혹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홍익대 영산대학원장과 광교대학교원장을 겸임하던 2010

년 장남이 홍익대에 입학한 점을 지적하면서 “장남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아버지가 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인 미술계 명문으로 통하는 학교에 입학한 것에 국민은 서연치 않게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최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체납한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한 데 대해 “2004년과 2005년에도 세금을 체납했다가 2006년 10월에 납부했다”며 “여기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연말소득공제에 포함, 불법 환급받은 세금이 630만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세금 체납에 대해 “국민 어렵게 사죄드린다”고 밝힌 뒤, 장남의 대학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입시업무로부터 완전 배제돼 있었으며 전혀 특혜는 없었고, 제 아이의 능력성적 좋아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임환수 국제청장 후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적격 의견을 낸 임환수 국제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산적한 세정과세를 추진해 나갈 의지와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된다”면서 “준법성과 도덕성 측면에서 별다른 흠결을 발견하기 어려운 국제청장으로 적격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다만 보고서에서 임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 중에 석사과정을 수료한 문제를 지적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통 주역사주

주역은 우주만물의 변화과정을 설명한 유교의 경전이다. 인간도 예외 일수는 없다.

본인의 운명 판단 및 미래에 대비하는 **주역의 종합본**

저서 서상덕 (전 교육연구원) 석사

- 필사본
- 정가 : 32,000원 (택배비 포함)
- 구입문의: 010-4211-2146
정확한 우편번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명시
- 불법 복제를 금함

2014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971)	광주교육대학교(1071)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4. 9. 5.(금) 09:10 (특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4. 9. 5.(금) 14: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4. 9. 6.(토) 09:10 (중급반)	·월요일 오후반: 2014. 9. 1.(월) 14:10 (초급반) ·월. 목. 야간반: 2014. 9. 1.(월) 19:00 (중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4. 9. 4.(목) 09:10 (고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4. 9. 6.(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4. 8. 1.(금)~9. 6.(토)	2014. 8. 1.(금)~9. 6.(토)
수업기간	2014. 9. 5.(금)~2015. 2. 14.(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4. 9. 1.(월)~2015. 2. 14.(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현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교과목 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현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교과목 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1950-3582~4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1620-4243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근후근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주택 외벽

계경기와 지붕

사료탱크

돈사 지붕

적용범위 : 신속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성글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경기와 지붕 / 아지판널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